

성균관대학교 제56대 총학생회 자연과학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일시 2024. 03. 20 (수) 19:00
 회의 장소 기초학문관 51205
 회 차 56 - 임시 01
 서 기 인사운영국 차장 내정자 강채현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	부총학생회장 ○	자연과학대학 ○
정보통신대학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	공과대학 결석
건축학과 ○	약학대학 ○	생명공학대학 ○
스포츠과학대학 ○	의과대학 무단결석	동아리연합회 ○

전체 단위 수: 12 (정족수: 8) / 출석 단위 수: 10



1. 단위별 사업 보고

1) 총학생회

없음.

2) 자연과학대학

가. 영단기커넥츠 제휴 체결

나. (03.20) 자연과학대학학생대표자회의 진행

다. 학생회실 개방 사업 재개

라. 학생회실 홍보 사업 진행 중

3) 정보통신대학

없음.

4)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가. BGN밝은눈안과 홍보 진행 완료

5) 공과대학

없음.

6) 건축학과

없음.

7) 약학대학

없음.

8) 생명공학대학

없음.

9) 스포츠과학대학

없음.

10) 의과대학

없음.

11) 동아리연합회

없음.

2. 논의 및 심의 안건

1) 총학생회

가. 2024학년도 1학기 자연과학캠퍼스 학생회비 배분안 논의

- **총학생회장:** 2024학년도 1학기 자연과학캠퍼스 학생회비 최종 배분안에 대하여 논의하겠음. 배분안 관련하여 동아리연합회의 추가 브리핑을 진행하겠음.
- **동아리연합회:** 동아리연합회 학생회비 배분안 브리핑 시작하겠음. 목차는 상황 보고와 증액 근거, 추후 증액 예산 운영 방안임.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03.18) 때 말씀드린 내용은 제외하고 브리핑하겠음.

먼저 상황 보고임. 2020년 제39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동아리연합회 이구동성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중앙동아리 위기'를 선포하였음. 이에 따라 온라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학생회비 배분 비율을 11%로 증액하였음. 동아리연합회의 첫 번째 증액 근거는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동아리연합회와의 연대임. 2024년 자연과학캠퍼스 제42대 동아리연합회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캠퍼스 때문에, 약화된 성균관대학교 동아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동아리연합회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공약으로 내세웠음. 현재 연석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 중이며, 양 캠퍼스의 동아리 사회에 대한 괴리를 줄이고 통합을 논하였음. 불평등한 배분안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제43대 동아리연합회 악동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을 요구하였음. 배분 비율 자체가 낮다는 것은 자연과학캠퍼스 동아리연합회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동아리연합회보다 약체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함. 이는 단순 학생회비 배분에서 기인하는 예산의 차이를 넘어, 협찬과 대외 사업에서 위상 악화를 가져오고 있음. 캠퍼스의 동아리연합회가 분리된 상황에서, 차이 나는 학생회비 배분 비율은 성균관대학교 학우가 볼 수 있는 자료에 명시되어있음. 따라서 실질적인 위상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동아리연합회가 상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음. 또한, 연석으로 운영되는 중앙동아리의 숫자 또한 인문사회과학캠퍼스가 많은 상황임. 이는 장기적으로 인문사회과학캠퍼스와 자연과학캠퍼스 간의 불평등을 일으킬 수 있음. 양 캠퍼스 재학생 수 자체가 차이 나는 상황에서 동등한 금액을 바라기엔 어려움. 하지만 양 캠퍼스의 학생사회가 동아리 사회에 동등한 비율의 금액을 투자하여 이러한 인식 차이를 극복하고,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동아리 사회와의 통합을 위한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현재 자연과학캠퍼스 동아리연합회의 입장임.

이에 대해 학생사회를 대표하는 각 단과대학과 독립단위 학생회장단님들의 이해를 구함.

동아리연합회의 두 번째 증액 근거는 변화하는 동아리연합회의 규모와 위상에 상응하는 사업 기획임. 동아리연합회는 독립기구로서 위상이 상승했을 뿐 아니라, 실질적 규모도 커졌음. 2019년 이전의 동아리연합회의 집행위원은 약 7~10명 정도였지만, 2024년 현재 동아리연합회의 집행위원은 28명임. 2023년 제41대 동아리연합회 Reborn에서 동아리의 밤과 북피크닉 등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개최 후, 동아리 행사의 규모가 동아리연합회의 규모에 맞게 확대되었음. 2024년 제42대 동아리연합회 SHARP에서 주최한 동아리 박람회는 글로벌 광장에서 최초로 진행되었고, 단과대 동아리들의 홍보기회 또한 동아리연합회에서 제공하여 약 60여 개의 동아리가 참여하였음. 코로나 사태 이후 동아리 사회는 단순히 옛 모습을 복구하는 데에 상주하지 않고, 더 넓고 활발한 학생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고 이바지함. 자연과학캠퍼스 동아리연합회 또한 이에 상응하는 행사 기획을 위하여 학생회비 증액을 요청함.

다음은 동아리연합회의 비전임. 동아리연합회는 학생문화의 주축이 되는 동아리 문화 활성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함. 동아리연합회는 분리된 양 캠퍼스 학생 문화의 통합과 활발한 문화 교류를 위하여 헌신할 것임. 자연과학캠퍼스 동아리연합회는 학생 문화에 이바지하는 자연과학캠퍼스 동아리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할 것임. 단과대 동아리들 또한 중앙동아리들과 함께 활동할 기회의 장을 제공하여 분산된 동아리 사회의 관심도를 높이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임. 이번 증액 요청은 단순히 금액 증액만이 아닌, 인문사회과학캠퍼스와의 연대와 동아리 문화 활성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임.

마지막으로 추후 증액 예산 운용 방안임. 증액 예산은 성균문화제와 동아리 복지에 사용될 것임. 성균문화제는 동아리들 고유의 색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정신을 공유하는 ESKARA와는 차별된 행사임. 동아리 문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동아리를 위한 행사임. 단과대 동아리들 또한 성균문화제라는 거대한 장에서 동아리 문화 활성화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음. 1일 차는 전시전과 통합 학술제, 2일 차는 공연, 공통으로 스포츠 부스, 취미 부스 등으로 이루어져 연행예술분과, 기악예술분과 등의 동아리들에 치우치지 않은 전체적인 동아리 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사임. 동아리연합회는 해당 행사 기획이 지속해서 동아리 문화 활성을 위한 구심점이

되도록, 증액된 예산 대부분을 성균문화제 기획에 사용할 예정임. 동아리 복지 내용은 다음과 같음. 현재 빌보드, UBF, 화려한 혈통, 호그와트, 동아리연합회실 등 5개 이상의 동아리방 시설이 고장 나 있는 상황임. 학교에서는 고장이 난 도어락에 대한 관리, 조치 의무가 없음. 이번 동아리연합회의 정책 중 잠금장치 보수 등 동아리 복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추가로 받을 학생회비 중 잔여 금액은 시설 등의 동아리 복지사업에 사용할 예정임.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 사회를 이끄는 자치기구임. 동아리연합회는 궁극적으로 학생 문화의 활성화를 목표로 두고 있으며,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동아리 사회와의 통합이라는 원대한 목표 또한 가지고 있음. 자연과학캠퍼스의 학생 문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내 중앙동아리들을 위한 복지와 동아리 사회의 통합을 위하여, 자연과학캠퍼스 동아리연합회는 학생회비 배분 비율을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동아리연합회와 동일한 수준인 11%로 높이기를 주장하는 바임.

- **생명공학대학:** 첫 번째 증액 근거에서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동아리연합회와 배분 비율이 같아지면 통합이 된다고 하셨음. 배분 비율만 같아지면 통합이 가능한 건지, 배분 비율을 제외하고도 다른 차별점이 있어서 통합을 못 하고 있던 건지 질문함.
- **동아리연합회:** 지금까지 양 캠퍼스 동아리가 통합하지 못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 번째로 양 캠퍼스가 서로 무관심하였음. 두 번째로 학생회비 배분 비율의 차이 때문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동아리연합회가 자연과학캠퍼스 동아리연합회와 함께 사업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음. 제42대 동아리연합회 SHARP는 인문사회과학캠퍼스와의 교류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현재 최초로 연석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회의를 2차까지 진행하였음. 학생회비 배분 비율이 동등해지는 것은, 양 캠퍼스 동아리 통합의 초석이 될 것이라 답변함.
- **생명공학대학:** 결국 학생회비 배분 비율 문제만 해결된다면, 순조롭게 통합된다는 것인지 질문함.
- **동아리연합회:** 그렇다고 답변함.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인문사회과학캠퍼스와 교류를 하여 운영하면 어떤 효과가 있으며, 기존 행사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문함.
- **동아리연합회:** 2학기에 기획 중인 성균문화제 행사를 인문사회과학캠퍼스와 연합하여, 성균관대학교의 모든 동아리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답변함. 우선, 이번 제42대 동아리연합회 SHARP의 목표는 총동아리연합회를



구축하는 것임. 총동아리연합회에서 양 캠퍼스 동아리들이 연합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답변함.

- **생명공학대학:** 총학생회실도 학생회관에 있는데, 총학생회실은 시설보수를 학생회비로 하는지 질문함.
-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예산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산안이 매우 빠듯한 상황임. 따라서 시설보수는 학교 측에 연락하여 진행함.
- **생명공학대학:**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총학생회는 학생회비로 시설보수를 진행하지 않지만, 동아리는 왜 학생회비로 시설보수를 진행하는지 질문함.
- **동아리연합회:** 정확히 말하자면, 학교 시설이 아니라 동아리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들을 말함. 도어락 같은 경우도 동아리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이므로 개인 시설로 치부되며, 학교에서 수리해줄 의무가 없음.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동아리연합회도 도어락 수리와 같은 시설보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참관인(성균용합원):** 학생회비는 성균관대학교 재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사용되는 돈임. 복지사업 대상이 중앙동아리만인지, 단과대 동아리로도 확대될 수 있는지 질문함.
- **동아리연합회:** 논의가 필요하지만, 도어락 수리 정도는 예산이 남는다면 단과대 동아리도 가능하다고 답변함.
- **참관인(성균용합원):** 학생회비 배분 비율을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동아리연합회와 동일하게 11%로 하는 것은 공감함. 그러나 금액적인 측면만 본다면, 단과대학은 운영하는 학생회비가 줄어드는 것임. 단과대학 소속 동아리는 학생회관의 합주시설을 사용할 수 없어, 외부에서 시설을 대여할 예정임. 결국, 단과대학의 학생회비가 줄어들게 된다면, 단과대학 소속 동아리의 지원 비용도 줄어드는 것임. 학생회관 시설을 단과대학 소속 동아리들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지 질문함.
- **동아리연합회:** 현재 학생회관에 있는 밴드 시설은 트락연합 기구의 회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회칙에 따르면 지정된 세 개의 동아리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회칙은 동아리연합회가 건들 수 없음. 하지만 기악예술분과 연습실은 단과대 동아리도 대여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함.
- **참관인(성균용합원):** 예산이 삭감되는 단과대학 입장에서는 의향과 확답에서 느끼는 차이점이 존재함. 단과대학 소속 동아리 지원에 확답이 있어야, 믿고 의결할 수 있음.
- **동아리연합회:** 트락연합 기구와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공간 대여는



단과대 소속 동아리도 할 수 있다고 답변함. 그러나 대여한 공간에 있는 약기는 대여 공간 동아리의 소유물이므로 사용할 수 없음.

- **참관인(성균용합원):** 공간 대여가 가능한 곳에 특정 동아리의 물품을 계속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함.
- **동아리연합회:** 제한할 수 없다고 답변함. 현재, 제한하는 방안은 없지만, 문제가 된다면 제한하는 방안을 만들겠음.
- **생명공학대학:** 중앙동아리 중 상시모집 구글폼을 비활성화하여, 동아리에 관심이 있는 학생의 참가를 제한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음. 이런 경우, 홍보 부스를 활성화하여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닌지 질문함.
- **동아리연합회:** 해당 동아리가 어디인지 질문함.
- **생명공학대학:** 알아보겠다고 답변함.
- **동아리연합회:** 중앙동아리는 상시모집이 원칙임. 모집 구글폼을 비활성화하는 행위는 회칙에 위배되는 것임.
- **자연과학대학:** 이번 동아리 홍보 부스를 진행하며, 단과대학이 단과대 소속 동아리들을 모두 관리하기 힘들다고 느낌. 단과대 소속 동아리도 동아리연합회가 관리해주면 좋을 것 같음.
- **동아리연합회:** 동아리연합회가 진행하는 행사의 경우, 단과대학 학생회에서 요청만 해주시면 다 관리해줄 수 있음.
- **참관인(성균용합원):** 트랙연합 기구의 회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연습 공간은 오직 지정된 세 개의 동아리만 사용하고 있는지 질문함.
- **동아리연합회:** 그렇다고 답변함. 지정된 세 개의 동아리는 중앙동아리로 승격된 대신, 동아리 방이 없음.
- **참관인(성균용합원):** 단과대 소속 동아리의 동아리 방은 단과대가 배정해주는 것인지 질문함.
- **동아리연합회:** 그렇다고 답변함.
- **건축학과:** 지금 대화 내용이 동아리연합회의 예산 운용에 관련된 것 같음. 물론 해당 안건이 가결된다면, 단과대학의 학생회비가 삭감되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단과대학 학생회가 동아리연합회에게 무엇을 내어달라고 요구하거나 약속받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음. 학생사회를 위한 동아리연합회의 증액 요구를 중점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 **동아리연합회:** 동아리연합회 또한 집행부원이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기에, 이 자리에서는 확답을 해 드리기 어려움. 학생사회를 위하여 중앙운영위원분들의



신중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 **총학생회장:** 오늘 브리핑 내용이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03.18) 때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음.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03.18)에서의 주안점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동아리연합회와의 학생회비 배분 비율 차이였음. 이때, 무작정 학생회비 배분 비율을 11%로 올리는 것이 옳은지, 다른 조정안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얘기를 하였음. 이와 관련한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동아리연합회의 의견도 필요하여 임시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함.
- **동아리연합회:**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동아리연합회는 자연과학캠퍼스 동아리연합회와의 연대를 위하여 학생회비 배분 비율을 11%로 높이도록 요청하였음.
- **총학생회장:** 사실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동아리연합회 입장에서는 본인의 학생회비 배분 비율을 9%로 낮추는 것 보다, 자연과학캠퍼스 동아리연합회의 학생회비 배분 비율을 11%로 높이는 것이 당연함. 학생회비 배분 비율과 관련하여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동아리연합회와 많은 소통이 있었는지 질문함.
- **동아리연합회:** 있었다고 답변함.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동아리연합회는 자연과학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본인의 학생회비 배분 비율을 낮춰달라고 요청하면, 자연과학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였음.
- **정보통신대학:** 증액예산 대부분을 성균문화제 사업에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성균문화제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길 요청함.
- **동아리연합회:** 기존에는 2학기에도 동아리 홍보 부스를 진행하였음. 그러나 홍보 부스는 1학기에만 진행하고, 2학기에는 동아리가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보여주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따라서 기존에 나흘 동안 진행한 홍보 부스를 이틀로 줄이고, 1년 동안 활동한 것을 보여주는 장을 제공하는 것이 성균문화제임. 첫째 날에는 전시전과 통합 학술제를 진행하며, 둘째 날은 공연, 부스 등 전체적인 동아리 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진행함. 공연 같은 경우, 모든 동아리의 활동을 보여줘야 한다 생각하여 오디션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임.
- **정보통신대학:** 이번에 신규로 기획하는 행사인지 질문함.
- **동아리연합회:** 그렇다고 답변함.
- **정보통신대학:** 관련된 예산안은 편성되어있는지 질문함.
- **동아리연합회:** 아직 편성되어있지 않다고 답변함. 생각보다 행사 규모가 클 것임.

규모가 큰 만큼 동아리연합회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아지지만, 동아리의 이점을 잘 보여주며 동아리다운 것들을 보여주어, 동아리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 사업을 기획하였음.

- **건축학과:** 성균문화제 관련 단위요구안이 있는지 질문함.
- **동아리연합회:** 있다고 답변함.
- **건축학과:** 단위요구안에 어떤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어떻게 기획을 하였는지 적혀 있을 것이므로, 단위요구안을 공개할 수 있는지 질문함.
- **동아리연합회:** 제출한 단위요구안은 초안이므로, 작년에 진행하였던 동아리의 밤과 비슷하게 작성되었음. 따라서 제출한 단위요구안의 내용은 설명한 성균문화제와 많이 다를 것임. 따라서 이 단위요구안을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변함.
- **건축학과:** 브리핑 자료에 있는 내용은 중앙운영위원들을 설득시킬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함. 예산이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있지 않아, 단위요구안 공개를 요청하는 바임.
- **총학생회장:** 단위요구안이 초안이어서 지금까지 기획한 내용이 많이 담겨있지 않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동아리연합회 단위요구안 공유)
- **건축학과:** 동아리연합회의 학생회비 배분 비율을 2% 높인다 해도, 사업을 진행하기에 예산이 부족해 보임.
- **동아리연합회:** 동아리에서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많이 지원해줌. 또한, 학교 시설을 많이 이용한다면,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는 돈은 자료에 명시된 예산보다 적음.
- **자연과학대학:** 동아리에 일종의 자치회비를 걷는 것인지 질문함.
- **동아리연합회:** 아니라고 답변함.
- **생명공학대학:** 중앙동아리가 필수참여라 하였는데, 대상이 자연과학캠퍼스 소속 동아리인지 질문함.
- **동아리연합회:** 그렇다고 답변함.
- **생명공학대학:** 인문사회과학캠퍼스와의 통합을 주장해오셨는데, 성균문화제 행사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동아리도 참여하여야, 통합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나 싶음. 자연과학캠퍼스 동아리끼리만 행사를 진행하면, 통합의 의미가 없는 것 같음.

- **동아리연합회:**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동아리연합회는 총동아리연합회의 체계가 먼저 구축이 된 후, 행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함. 이에 대하여 자연과학캠퍼스 동아리연합회는 명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성균문화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야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동아리연합회를 이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함.

<동아리연합회의 학생회비 배분 비율을 11%로 높여, 2024학년도 1학기
자연과학캠퍼스 학생회비 배분안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에 찬성한다.

→ 가결 (찬성 10 / 반대 0 / 기권 0)

- **동아리연합회:** 더 많은 학생이 동아리 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것을 돕는 일이 동아리연합회의 역할이라 생각함. 모든 학생이 동아리 문화에 관심을 두고 활동할 수 있도록, 증액된 학생회비를 사용하겠다고 약속드림.



3. 기타 안건 및 건의 사항

1) 총학생회

가. 예비군 조식 사업 협력 요청

- **총학생회장:** 예비군 조식 사업을 진행할 때, 총학생회에서 프로모션을 최대한 받아오고, 부족한 물품은 직접 구매하여 진행하였음. 작년 기준, 예비군 인원이 약 3,300명이어서, 개당 ₩1,000인 소시지 빵을 인원의 약 90%인 3,000개 구매하였음. 이때 단과대학 학생회에 협력을 받아 구매를 진행하였음. 따라서 이번에도 단과대학 학생회에 협력 요청을 하고자 함. ₩3,000,000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인 ₩1,200,000을 총학생회에서 지원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대학원과 단과대학이 지원하였음. 단과대학 소속 예비군 인원수로 비율을 나누었음. 동아리연합회는 지원하지 않아도 되나, 작년에는 ₩300,000을 지원해주셨음. 이번 동아리연합회는 어떻게 하실 건지 질문함.
- **동아리연합회:**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예비군들을 위하여 올해도 ₩300,000을 지원하겠다고 답변함.
- **약학대학:** 작년과 비교하여 예비군 인원수가 같은지 질문함.
- **총학생회장:** 인원수는 늘었으나, 대학원 소속 예비군 인원이 늘어났다고 답변함. 따라서 단과대학의 비율은 변동이 크게 없을 것 같음.
총학생회도 작년과 동일하게 40% 지원하겠음. 구체적인 비율은 제8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03.25)에서 설명하겠음.
- **건축학과:** 품목은 작년과 동일한지 질문함.
- **총학생회장:** 품목은 총학생회 프로모션에 달려있어, 열심히 해보겠다고 답변함. 프로모션과 구매할 물품의 세부 내용은 결정되면 공지하겠음.

총학생회장	정영기
부총학생회장	이현진
자연과학대학	나재원
정보통신대학	송승현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전형준
공과대학	나심현
건축학과	최연재
약학대학	이홍규
생명공학대학	손민우
스포츠과학대학	김재경
의과대학	신현승
동아리연합회	문준호

상기 회의록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03월 20일